

Hugo W. Kim
인생의 회상과 노년의 향기
Reminiscences of My Life

제 3 장

미국 유학과 이민 정착 (1979-2000)

1. 석사과정 유학 시절 (1979-1982) 43
경영행정학 석사 및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2. 박사과정 유학 시절 (1983-1990) 49
자격시험 & 종합시험 합격, 학위논문 합격 및 논문 출간
3. 경제적 안정과 이민 정착 (1990-2000) 57
경제적 안정, 교포 지인, 시민권 취득
4. 초기 학술활동 (1990-2000) 61
국제한국학학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학술논문, 한국어 에세이

전 후방에서 13년간 지휘관-참모-교관의 직책을 경험하고 육군본부 참모장교로 임무 수행 중, 군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유학을 하게 되었다. 1976년 8월에 출국하여 워싱턴 DC에 소재한 Southeastern 대학에서 경영행정학 석사학위를 1년만에 취득하였으며, 같은 DC에 소재한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 전학하여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82년 6월에 귀국하였다.

다음 해에 국방대학원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어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3년간 유학을 오게되어, 1983년 8월 출국하여 워싱턴 DC 소재한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경제학 박사과정에 등록하였다.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논문을 제안하고 1986년 6월 귀국하여 국방대학원 교수로 보직되었다. 그러나 대령진급에 탈락하여 1987년 4월 중령 계급정년으로 전역하였다.

나는 민간인 신분으로 워싱턴 DC로 돌아와 같은 학교에 등록을 하고 “수출주도 성장의 비교분석: 한국과 대만의 사례연구” 제목으로 학위논문을 시작하였다. 내가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동안 아내가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여 점차 경제적 안정을 가져왔으며, 1990년 3월 나는 학위논문 방어에 성공하여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는 Southeastern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아내의 사업을 돕는 한편,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CSIS)의 객원연구원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치 경제의 학술활동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하기로 결심하고, 가르치고 있던 Southeastern 대학의 고용 보장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2년 내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2000년에 미국 시민이 되었다.

학위를 받은 후 10년간은 나의 50대로, 내가 미국에 정착하여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하는 시기였다. 워싱턴 지역은 경쟁이 치열하여 만학의 외국 태생이 좋은 연구직이나 교수직을 구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경제적 안정을 얻은 후에 아내는 사업을 정리하였고, 나는 DC 사무실을 버지니아로 옮겨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가르치면서, 4반세기 동안 정치와 경제의 역사를 연구하며 저술을 하였다. 회고해 보면 지난 20년은 미국 유학으로 전역을 하게되었고, 나에게서는 이민을 준비하고 정착하는 기간이 되었다.

1. 석사과정 유학 시절 (1979-1982)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관리장교에 보직되어, 수시로 제기되는 군의 인사관리 문제에 관해 참모연구를 하게되었다. 육군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가용한 방책을 3 개 정도 염출하여, 주제와 관련된 지배적 요소를 결정하고, 각 방책을 염두판단으로 평가하여 최선의 방책을 선택하며, 선정된 방책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건의하였다. 나의 참모연구는 통상 제도과장-인사관리 처장-인사참모부장을 경유하여 참모총장의 재가를 받았으며, 연구가 흡족할 경우 격려하는 의미에서 금일봉까지 받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당시 인사관리처장은 박준병 준장으로 육사 12 기의 수재였으며 참모연구에 분명한 지침을 주셨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참모연구 방법에 대해 불만스러워 선진한 계량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미국 유학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여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군 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경영학 석사과정으로 미국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되었다. 당시 나는 두 가지 우려가 있었다. 우선 자신이 능력있는 장교가 되기위하여 해외 유학의 길을 택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군의 경력을 쌓지 못하면 지휘관으로 진출하는데 동기생들과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은, 당시에 유학장교는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국민학교에 다니는 딸이 2 명 있는 가족을 남겨두고 가면, 자신이 유학하며 미국에 체재하는 동안, 이들을 아내 혼자 돌본다는 것이 많이 염려되었다.

경영행정학 석사과정 (1979-1980)

유학할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육사의 학과성적이 우수하지 못하여 미국의 저명한 대학원에 지원하지 못하였고, 결국 워싱턴 DC 에 소재한 Southeastern 대학에 입학하였다. 나는 1979 년 8 월 워싱턴 DC 에 도착하여, Arlington 어느 지역에 콘도를 렌트하고 같이 유학온 한 후배 장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한달 쯤 지나서 광고를 보니, 미군 중령 2 명이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1 명 더 입주자를 구하고 있었다. 연락을하여 만나보니, 펜타곤에 근무하는 미 육군 중령과 미 공군 중령으로, 같은 군인으로 동료감이 있다고 받아주어, 바로 입주하여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6 개월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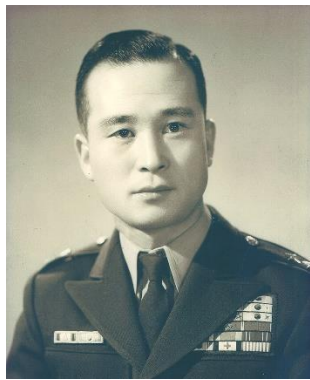
이 대학은 4 개월을 한학기로서 1, 5, 9 월에 학기가 시작하였고, 내게는 전공과목 외에 첫학기에 영어 독해를, 다음 학기에는 영어 작문을 신청하도록 요구하였다. 나는 특히 영어 청취력이 부족함을 절감하였다. 고교시절 영어회화반장도 해보고, 월남에서 미군들과 함께 지내면서 큰 불편이 없었기에 자신이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청취 능력이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집에서 미리 연습을 하더라도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으며, 영어 청취력을 향상시키려고 라디오를 들을 때 의도적으로 음악보다 뉴스를 틀어놓았다. 영어 청취력도 문제였지만, 발표할 때 영어를 말하는 능력도 많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발표할 차례가 되면 원고를 써서 사전에 몇번이고 연습을 하였다. 한국에서 자란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미국에 유학와서 제대로 학문을 배울 수 있다고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나는 첫학기에 행정 관리자, 연방정부의 행정, 계량적 요소의 3 과목을 선택하였다.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정부 관리학이기 때문에 정치학을 바탕으로한 경영학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바탕에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깔려 있었다. 나는 민주주의 국가의 장교로서 당연히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당시 나는 프러시아 장교가 제복을 입고 승리를 위하여 나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정으로 국민 각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행정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당시의 한국 정치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거리는 항상 최루탄으로 뒤덮였고, 대학교는 학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민주화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두번째 학기에는 행정학 이론, 행동 요인, 공공행정 및 정치과정, 기업과 정부관계를; 세번째 학기에는 공공 인사관리, 관리 경제학, 지방정부 관리, 기업의 공공업무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자금계정 및 예산편성을 끝으로 학위과정을 끝내고, 1981 년 8 월에 경영행정학(MBPA)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는 경영행정학 석사 과정에서 1 년만에 대부분의 과목을 이수하여, 같은 DC 에 소재한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경제학 석사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아 1980 년 9 월에 등록하고, 유학 잔여기간에 추가적으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

경제학 석사과정 (1980-1982)

경영행정학은 군대의 부대관리와 연관이 있었고, 서울대학교 학군단 교관으로 있으면서 관리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과목을 1 년에 마칠 수 있었다. 따라서 유학 잔여 기간에 경제학에 도전하려는 나의 시도는 개인이나 군을 위하여 득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경제학 석사과정은 특정분야에 특수화된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대동소이 하였다. 나는 거시경제학이나 미시경제학 등 주요 과목을 공부하였고, 학기 중 허리에 통증이 생겨 수술을 받아 한 학기동안 입원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육군본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유학기간을 1 년 연장 받아 요양하고 치료하면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82 년 6 월에 귀국하였다. 이때 나의 입원 사항을 이해하고 유학기간 연장을 승인해 준 육군 지휘부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미국가톨릭 대학교에서는 경제학과에 김웅수 교수님이 통계학을 가르쳤는데, 이분은 군의 대 선배로, 인생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는 제 6 군단장 복무 중 1961 년 5 월 16 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때, 군단 예하 부대에서 쿠데타에 가담한 부대의 원대복귀를 명령하여 혁명재판부가 반혁명 죄목으로 10 년형을 언도하여 1 년 가까운 옥고를 치르고 1962 년 5 월 형 집행 면제로 출감되었다. 같은 해 8 월 미국 국무부의 주선으로 도미하여 만학으로 시애틀소재 워싱턴대학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1972 년 워싱턴 DC 소재 카톨릭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모교에서 정년까지 가르쳤다. 나는 자신의 영문저술 1 권 서문에서 그분에 관해 이렇게 기술하였다. “Second, former my teacher Dr. Ung Soo Kim (1923-2018)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in Washington, DC had influenced me to do beneficial works for society and civilization, which became my asset to form a public mind in my life.” “둘째, 워싱턴 DC 에 있는 미국 가톨릭 대학의 전 스승 김웅수 박사(1923-2018)는 저에게 사회와 문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고, 이는 제 인생에서 공적 지성을 형성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날카로운 지성과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모범을 보이셨다. 나는 박사과정에서도 이분과 많은 대화를 하였다. (사진: 김웅수 장군)

석사과정 유학시절의 추억 (1979-1982)

(1) 장녀의 ESL 교사와 송별: 미국에 유학을 온 뒤 6 개월이 지나서 가족의 동반이 허용되어 아내와 두 딸이 나와 합류하게 되었다. 첫째가 초등학교 3 학년, 둘째가 1 학년에 전입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들이 ESL 학급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 이때에 아내가 영어를 가르치던 교사 Mrs. Carol Beck 을 도와주면서, 그 인연으로 인해 서로 친하게 되었다. 그의 남편 Dr. Fred Beck 은 역사학자로 펜타곤에서 전쟁사 편찬에 관여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친하게 되어 가끔 왕래가 있었고, 미국에 와서 처음에 내가 현찰이 부족한 것을 알고 돈을 융통해주어,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보태었고, 한국에서 돈이 도착하여 곧 바로 갚았다. 그들은 참으로 선하고 친화적인 사람들로, 그들 내외가 은퇴하여 딸이 살고있는 샬로스빌로 이사를 할 때, 장녀와 함께 그분 내외를 식당에 초대하여 아쉬운 송별을 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 은퇴하여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였다.

(2) 신장결석의 어려움을 극복하다: 육군 3 사관학교 훈육관 보직을 끝내고 1977 년 초봄 즈음 육군대학 입교 전에 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소변에 피가 섞여나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결석으로 판명되었다. 훈육관 18 개월 기간에 사관생도들과 고된 훈련을 함께하는 동안, 아마도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여 신장에 결석이 축적된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과 비수술 방법이 있었는데, 나는 비수술로 결석을 추출하기로 작정하였다. 물을 많이 마시고 맥주를 들면서 수박 같은 과일을 자주먹으며 꾸준히 노력하였다. 신장결석 진단을 받은지 3 년 넘게 지나서 유학중 어느날 결석이 방광과 요도를 통하여 소변으로 추출되어 매우 신기하였다. 이는 그간 나의 식단에 신경을 써준 아내의 공로로, 그녀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를 표시하였다.

(3)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나는 평상시 종종 허리가 아파, 누어서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져서, 과로로 생긴 탓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유학 기간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일 오랜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를 무리하게 하니 허리에 통증이 와서, 얼마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집에서 공부를 하였다. 내가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하니 알아보시고, 경제학과 교수인

김웅수 장군께서 염려가 되어 갑자기 나의 숙소를 방문하셨다. 그분은 나의 상태를 보시고 바로 응급차를 불렀고, 나는 차에 실려 Fairfax 병원으로가 검진을 받은 결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판명되었고, 바로 수술을 받게되었다.

나의 담당 의사는,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부근에서 매우 명성이 있는 유타계 의사인 Dr. Boltnic 이었다. 수술을 하고나니 허리의 모든 통증이 사라져 몸과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 후 나는 약 3개월 동안 꾸준히 걷기와 가벼운 뛰기를하며 건강을 회복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몸이 불편하면 병원의 검진을 받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위가 무엇이라고 미련하게 아픔을 참고 공부를 했느냐 하는 자책이 밀려온다. 다른 한편으로, 항상 일상이 바쁘신 가운데 후진을 사랑하여 가정방문을 하시고, 나를 응급으로 입원시켜 검진을 받고 수술로 치유하도록 도와주신 고 김웅수 장군님께, 벌써 40여년이 지난 지금, 한 인간으로서 다시 한번 높은 존경과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4) 축적된 지식이 증가하면 인지속도가 증가한다: 나는 유학 첫해에 후배 장교 한 사람과 한 동안 같은 코스를 공부하였다. 어느 교수가 특정한 책을 읽고 요약을 써 오라는 숙제를 주면, 그는 머리가 좋아서 지정된 책의 목차, 소개, 결론을 읽고 요약 보고서를 바로 작성하였다. 당시에 나는 독해력이 부족하여 숙전숙결로 숙제를하는 후배가 대단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지정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읽고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좀 허덕였으나, 점차 가속도가 붙어 책을 요약하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었다. 나는 이 시기에 “인지속도”에 관한 중요한 이치를 깨달았다.

개인의 능력은 지적, 심리적, 신체적 기능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지적능력은 수리(Quantitative), 언어(Verbal), 지각속도(Time), 공간 감지(space), 귀납적 추론(inductive), 연역적 추론(Deductive), 암기력(memory) 의 7 가지를 포함한다. 지적능력 가운데 지각속도(Perceptual Speed)는 사물을 보고 순간적으로 인식을 하는 인지 속도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독후감 요약”의 경험은 “관련지식을 축적하면 인지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책을 요약하면서, 수리나 언어 능력이 증가하면 자연히 독해력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천재는 노력이 90%라는 말의 의미를 수긍하게 되었다.



사진: 김휘국 중령 가족 (미국 가톨릭대학교 성당, 1981)

(5)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상황: 내가 석사과정을 유학하던 시절은 한국 정치가 격동하는 시기였다. 1979년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 12일은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다. 1980년 5월 전두환 장군 중심의 신군부는 5월 18일 광주 폭동을 강경 진압하였다. 전두환 장군은 8월에 예편하였고 1980년 9월에 제 5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김대중 등 재야인사들을 사회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조종 혐의로 연행하였고, 김대중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 후 전두환 대통령은 국제적 여론을 감안하여 김대중과 함께 연루된 11인에 대해 감형을 실시하였고, 김대중은 신병치료를 위해 1982년 12월 미국으로 출국 하였다. 대부분의 재미동포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비판하였고, 전두환 장군이 신군부를 동원하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 하였다. 나는 군의 정치개입에 대해 재미 동포들의 생각과 같았으나, 현역 군인으로서 정치에 간여하는 어떠한 언행도 삼가 하여야 했다.

2. 박사과정 유학 시절 (1983-1990)

나는 국방대학원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어 1983년 8월에 워싱턴 DC에 소재하는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경제학 박사과정에 3년 기간의 유학을 오게 되었다. 지난 유학에서 석사과정을 같은 학교에서 수학하여 이번 유학 준비과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었고, 가족과 함께 오게 되어 딸들의 학교 적응에도 별 분제가 없었다. 그러나 박사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미 군에서 학문으로 특수화된 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첨단 학문을 공부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력을 갖춘 학자가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매 학기마다 3~4 과목을 등록하여 각 과목을 철저히 공부하였다. 여기에서 박사과정 유학시절의 회상을 쓰려고 하니, 40여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아물거려, 서재에 가서 아직 버리지 않고 모아둔 당시의 노트 파일들(아래 사진)을 들춰보면서, 지난날 자신이 철저히 공부하였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것을 가능케 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사진: 경제학 박사과정 수강시 필기하고 요약했던 노트 모음 (1983-1986)

나는 3년간 박사과정에서 요구되는 과목을 모두 끝내고 자격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 논문 준비를 마치고 1986년 6월 귀국하였다. 당시에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다 끝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경제학 박사과정 유학 3년은 집-학교-도서관 그리고 교실에만 박혀있어서 특별한 추억이 없다.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개인 컴퓨터 출현이다. 내가 박사과정을 시작하던 1983년 속도가 느린 개인 컴퓨터가 시중에 나오기 시작하였고, 1984년에 비교적 빠른 IBM AT 모델이 나와서 꽤 비싼 값으로 무리해서 구입하여 조기 어답터가 되었다. 당시는 컴퓨터가 인터넷, 모바일 폰, 씨취 엔진 등으로 넓게 사용되리라 생각하지 못하였고, Word Perfect 나 Lotus 123를 사용하는 정도여서, Typewriter 사용할 때 정정에 고생하던 학생들이 리포트를 쓰기에 너무 편리하였다. 점차 Software가 개발되는대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여 AI시대를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노년이 되니 그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전술한 바와 같이 나는 1987년 4월 군에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었다. 전역 하자마자 지난번 유학에서 끝내지 못한 경제학 박사학위를 마치려고 워싱턴 DC의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로 다시 돌아와 등록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시작하였다. 우선 학위 논문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도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학과장에게 요청하였다. 제안된 논문 제목은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ort-led Growth: A Case Study of South Korea and Taiwan” (수출주도성장의 비교분석: 한국과 대만의 사례연구) 이었다.

1980년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뜨거운 이슈였고 “네마리의 용”은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의 아시아 선진국이었다. 그들은 195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사이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연간 7% 이상의 예외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나는 경제발전론과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여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하였고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이 분야에 배경지식을 이미 습득하였으며, 경제학 학술지에 발간되는 최신의 주요 논문들을 주의깊게 찾아서 학위 논문을 계속 보완하고 논문 심사에 대비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학술지에 발간되는 경제발전과 국제경제에 관련된 그리고 경제학 전반에서 이슈로 발전되고 있는 주요 에세이를 하루 5~6 개 정도 도서관에서 찾아 프린트하여, 집에서 가까운 간이 식당 Roy Rogers 에서 커피를 사 마시며, 여름이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루 종일 공부를 하였다. 나는 간이 식당 책임자에게 사전에 내가 학생이라고 밝히고, 학교 도서관이 멀어서 시간절약을 위해 도서관 대신 이 식당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문제 없어요”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양해해주어 곧 친하게 되었다. 논문이 진전됨에 따라 현장 답사를 위하여 1988 년 초에 한국과 대만을 각각 1 주일 정도 방문하였다. 당시 대만 경제는 한국보다 6 년 정도 선진한 상태였으며, 대만은 정부가 대기업을 주도하였고, 중소기업은 민간이 주도하여, 한국을 부러워 하였다.

나는 1990 년 3 월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위원회에 발표하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에 통과하여 논문심사에 합격 하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본 논문은 U•M•I Dissertation Information Service 에 의해 1990 년에 출간되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고통스런 사연이 있었지만 여기서 언급하고싶지 않다. 다음 부록에서 본인의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을 간략히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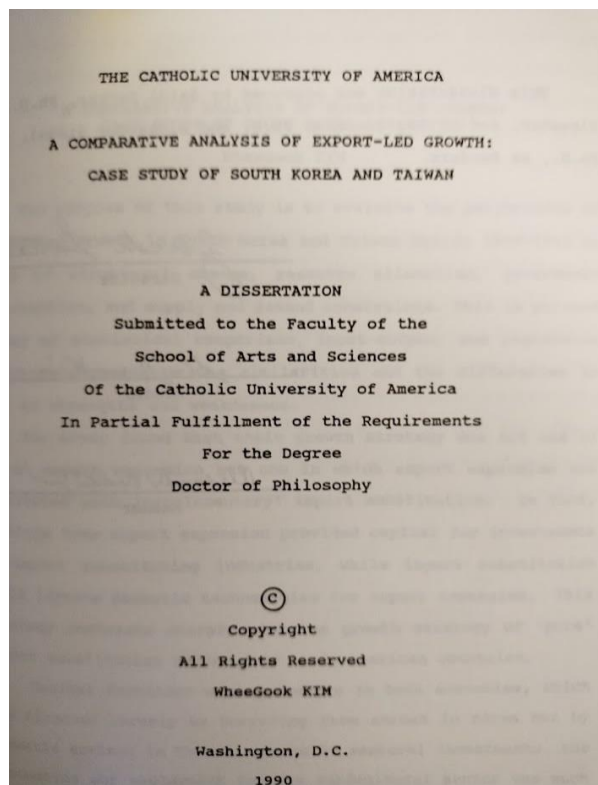


사진: 박사 학위논문 출간 (by U•M•I Dissertation Information Service in 1990)

부록: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소개

나의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수출주도성장의 비교분석: 한국과 대만의 사례연구”로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총 253쪽에 수록되어 있다. 제 1장은 논문의 소개이며 2장부터 7장까지는 이론과 실제의 배경, 모델과 방법론, 산업화와 산업구조 변화, 자원의 배분과 효율성,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 기술이전과 무역의 제약조건을 포함한다. 제 8장은 요약과 결론으로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본 부록은 비 경제 전문가인 일반 독자들을 위해, 복잡한 모델과 수리적 분석을 제외하고,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간략히 소개하려한다

수출 주도 경제성장의 이론적 검토

수출진흥의 성장전략은 불균형 성장으로 분류될 수 있고, 수입대체 성장전략은 균형성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a) 균형 성장과 불균형 성장은 장기적으로 같은 면에 있다. 불균형 투자가 특정 포화점에 도달하면 경제적 균형이 되며, 추가 투자가 이 균형을 깨뜨릴 때까지 이 균형은 변하지 않는다. (b) 제조업 수출은 어느 정도 수입대체를 필요로 하며, 지속적인 수입대체는 성장 효율성을 촉진하는데, 이는 후자가 배타적이지 않고 전자를 보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 수출 주도 성장은 좁은 국내 시장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며, 그 성공은 주로 비교 우위를 추구함으로써 유리한 무역 패턴과 기술 및 노동의 질 개선을 통한 더 높은 요소 생산성에 달려 있다. (d) 경쟁력은 한국과 대만의 개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정책을 도구로 삼는 정부가 고안한 인센티브를 통해 강화된다.

수출주도 성장을 위한 정부개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호에는 생산, 소비, 할당, 분배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수출로 인한 혜택이 인센티브로 인한 비용보다 커야 한다. 정부 개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의사 결정에 대한 간섭을 피해야 한다. 수출과 내수, 산업 간 중립은 적절한 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개입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의 일관성은 적절한 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개입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과 노동은 두 가지 주요 소득원이다. 자본은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임대료와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은 더 나은 일자리 기회와 노동 소득을 증가시킨다. 소득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개발전략은 노동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신설, 보호 및 보조금 비용, 인플레이션 정도, 생산지 위치 측면에서 소득평등 개선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실업자는 이전의 저축이나 대출에 의존하는 반면, 취업자는 평균적으로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실업은 소득 평등에 심각한 장벽이다. 셋째, 환경으로 인한 초기 단점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통해 보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정의와 사회 이동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의 동기를 잃지 않고 조세제도를 통한 자산재분배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효율성은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적 평등에 의해 완화되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NIC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은 차세대 NIC와 선진국 모두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 대만은 차세대 NIC의 낮은 투입단가와 선진국의 앞선 기술에 밀리고 있다. 그들은 또한 신보호주의 경향의 증가로 인해 미국 및 기타 OECD 국가들과 무역 갈등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주요 수단은 자발적 수출 제한, 발동 가격 메커니즘, 다중 섬유 배열 및 상계관세였다. 미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농업 분야에서 NIC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NIC 시장의 개방성은 보호 수단을 제거하지만 경쟁이 덜한 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통화 가치 상승에는 더 나은 조정을 위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한국과 대만의 수출주도 성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특정한 경제 특성 – 수입 대체에 의한 수출확대 전략, 공격적인 투자 및 자본 형성, 경제에 대한 상당한 정부 개입, 평등을 위한 정부개입, 그리고 유연성 및 조정 가능성 – 을 공유하는 것이 밝혀졌다. 경제발전이 한국-대만의 전략을 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두 나라가 동일한 초기 상황을 겪거나 동일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건에 의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빠른 경제 발전을 위해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 두 경제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전히 있다.

첫째, 문헌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고도의 수출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추구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성장전략은 순수 수출확대보다는 보완적인 수입 대체와 함께 수출확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확대는 노동집약적 단계, 자본집약적 단계, 기술집약적 수출의 3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과정의 각 단계에서 수출주도 성장 전략은 국내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내부 공급 제약 (중간재 및 자본 투입)과 외부 수요 제약 (무역 자유화 및/또는 무역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해외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연구 결과, 3 단계 각각을 통해 수출 확대 경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완적인 수입 대체 전략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대체 역시 중간 투입대체 단계를 거쳐 자본재와 기계류의 수입대체가 뒤따랐다. 수입 대체는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보완했기 때문에 후자 전략의 이익은 전자의 자원 비용보다 훨씬 컸다. 수입대체 역시 중간 투입대체 단계를 거쳐 자본재와 기계류의 수입대체가 뒤따랐다. 실제로 수출 확대에 의한 수익은 수입 대체 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제공했다. 위의 전략은 순수 수입 대체 성장 전략과 뒤이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뒤따르는 성장 전략과 크게 대조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열악한 성장 성과를 설명한다.

둘째, 자본 형성은 두 경제 모두에서 공격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해외 차입을 통해, 대만에서는 국내 저축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대만의 농업 투자는 초기에는 집중적이었으나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기간 동안 GDP 에서 제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보다 대만이 훨씬 높았다. 그 결과 농업부문의 고용당 생산량은 초기에는 대만에서 훨씬 높았으나 1985 년에 가까워졌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한국이 훨씬 높았으나 1985 년에 역전되었다.

셋째,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한 한국-대만의 경험은 개발 과정에서 정부 관리 및 통제 기술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교훈을 제시한다. 우선, 이는 좋은 개입이 나쁜 개입보다 낫다는 점을 증명한다. 양국 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고 보완적인 수입 대체를 위해 상당한 정부 개입을 통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개입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 정책은 민간 의사결정을 방해하기보다는 도움이 되었다; 계획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메커니즘은 매우 온전했다; 장기간의 안정된 정부로 인해 변화하는 상황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장기 정책의 채택이 가능해졌다; 효율적인 관료주의의 존재는 정책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했다.

넷째, 지속적인 무역 정책 개혁에 따른 수출 인센티브는 국내 제품의 세계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대만의 수출 성장 효율성은 중간수입이 적고, 자본 집약적 수출이 적으며, 설비 활용도가 높고, 재무 구조가 양호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높았다. 대만은 산업화 기간 동안 공평한 소득 분배를 보장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의 소득분배가 다소 악화되었다. 이처럼 대만은 효율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위한 정부 개입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과 낮은 평등을 달성했다. 이것은 정치-경제적 복합체가 적절한 재분배 메커니즘이 없을 때 경제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대만은 기술이전 및 자체기술획득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이 주도했지만, 대만에서는 중소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했다. 그들은 보호주의와 자유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적응해 왔다. 경제의 유연성과 조정성은 양국의 경제 발전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공산권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북 정책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수출 병목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 발전은 정부, 기업, 노동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와 빈곤층에 대한 더 나은 교육 제공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적인 시장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품질을 강조하는 경영 개선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는 경쟁력에 기여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적절하게 제 역할을 하여 양국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평등 사이의 균형은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평등을 위한 정부 개입이 없으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율성이 부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국민들이 똑같이 가난했던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거대 대기업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이제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청구하여 축적된 부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여 조사된 문제의 범위는 저자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본 연구의 범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장 전략을 추구한 다른 국가로 확장될 수 있다. 각 장은 더 많은 이슈와 관련 데이터를 추가하여 확장될 수 있다. 통계적 비교 방법은 개선된 모델로 수정될 수 있다. 더 많은 입출력 테이블 세트를 적용하면 연구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미완성 작업은 미래 연구의 특권이다.

3. 경제적 안정과 이민 정착 (1990-2000)

전역을하고 워싱턴으로 와서 나는 1987년 가을학기부터 3년간 학위 논문 준비에 바빴다. 한편 아내는 봉급을 꾸준히 받던 남편이 수입도 없이 공부만하고 있고, 봉급 저축으로 가져온 제한된 금액을 매달 조금씩 생활비로 축내고 있으니 걱정스러워, 샌드위치 가게를 하나 시작해 보겠다고 제안하였다. 경험도 없는데 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 지난 유학시절에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에 동의하였고, 지역에서 이름있는 한 부동산 회사를 방문하여 사장을 만나, 그 본부 건물에 가게를 열겠다고 제안하여 승인을 받았고, 조그마한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였다. 아내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므로 긴장하여서, 나는 가게 안의 조그마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공부를 하면서, 아내가 필요한 일을 수시로 도왔다. 처음 1년은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우리는 생존을 위해 강한 마음으로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1990년 봄학기에 나는 학위 논문 방어에 성공하여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제적 안정

처음에 시작한 샌드위치 가게는 규모가 작아 기대한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아내는 경험도 쌓았으니 규모가 큰 레스토랑을 해 보고싶다고 하였다. 나는 틈 나는대로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시장조사를 세심하게 하던 중, 전망이 좋게 보이는 한 식당이 경영난으로 팔겠다고 하여 대리인을 통해 인수를 추진한 결과, 운 좋게 우리가 인수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 교통성은 워싱턴 DC 6가와 D (SW) 를 접한 도시 1블락의 네모 건물에 6천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었으며, 구내식당은 이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였다. 이 건물은 개인 소유로 연방정부가 임차하고 있었으며, 구내식당은 12,000 sq ft 의 넓은 공간으로 나는 소유주와 독립적인 임차계약을 하였다. 아내는 이전의 가게를 정리하면서, 나와 함께 교통성 구내식당을 인수하였다. 우리는 경영 실패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실패 요인을 하나 하나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교통성 구내식당은 당시에 워싱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식당으로, 우리 내외의 능력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내가 학위를 마치고 교수로 취직하기 전에, 이민에 정착하는 수단으로 아내가 자진해서 레스토랑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나는 군에서 부대운영의 경험도 있고 이론적으로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아내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로 인수한 사업의 구조를 잘 편성하여 성공하도록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1) 사람들이 직장에서 점심을 하러 갈 때는 특정한 음식을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며, 가까운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입맛이 당기는 대로 주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큰 식당일수록 선택할 음식이 다양해야 한다. (2) 원하는 메뉴를 직접 주문하거나 부페에서 자유롭게 픽업할 수 있어야 한다. (3) 종업원들은 위생에 유의하여 복장은 깨끗하고 선뜻하며, 콜드 샌드위치나 그릴에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웃으며 친절하고 겸손해야 한다. (4) 셀프 서비스로 진열된 뜨거운 음식들이나 다이어트 손님들을 위한 야채 샐러드 바는 다양하고 신선하게 유지해야 한다. (5) 커피와 탄산 소다를 포함한 각종 음료수는 편리한 곳에 진열하여 각자가 자유로이 선택하게 해야한다. (6) 점심의 가용시간은 1시간 미만 이므로 계산대를 충분히 설치하여 손님들의 회전을 빠르게 해야한다. (7) 공무원들의 점심

지갑은 가벼워서 음식 값을 다른 식당보다 15% 저렴하게 하면, 박리다매로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 (8) 수시로 있을 손님들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한다.

당시 나는 Southeastern 대학에서 대학원 학급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새로 여는 교통성 구내식당과 5 블락 거리로 가까워서 처음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식당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구조를 개편하면서, 뜨거운 음식바와 야채 샐러드바를 각각 셀프 서비스로하는 진열대를 만들고, 손님의 빠른 회전을 위해 계산대를 5 개로 늘리는 등 일이 많아지면서 당분간 교수직을 내려 놓았다. 한편 아내도 버지니아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성혼한 장녀와 함께 본격적으로 교통성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식당의 구조를 개편하고 메뉴를 개발하여 새로 단장한 식당에서, 다양한 음식을 저렴한 값으로 구입하고, 기다리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식탁에 앉을 수 있으니, 과거에 좀 꺼려했던 교통성 공무원들은 물론 인근에 밀집된 빌딩에서 손님들이 몰려와서, 점심 시간이면 식당이 매우 복잡하였다. 그리하여 인수한지 2 년도 되기 전에 매상이 5 배로늘어나, 매상 증가에서 오는 소득의 증가로 인해 우리 가정은 빠른 속도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였다.

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아내와 나는 새벽에 일어나 교통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 I-66 를 타고 30 분 쯤 운전하여 식당 문을 6:00 AM 에 열면, 종업원들이 도착하고 식자재나 신문 등 배달이 온다. 하루 파는 물량이 많으니 식자재도 엄청났다. 그만큼 소득도 많으니 우리는 즐거운 마음이었다. 장녀는 파트타임으로 10AM 에 출근하여 점심 시간에 일하였고 주로 현금관리를 담당하였다. 아내는 식당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음식의 맛과 인사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나는 아침에 식자재가 들어오면 그 품질과 정량을 점검하였고, 장비유지·세금보고·법적 문제를 담당하였다. 우리는 3 시에 식당문을 닫고 I-395 로 퇴근하여 아난데일의 한국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와 하루를 마감하였다.

구내식당은 매우 넓어서 나는 식당 안에 연구실을 만들어 “동서문제 연구소”라 명명하고, 학술활동의 사무실로 렌트 없이 사용하며 큰 혜택을 보았다. 구내식당을 위해 내가 일하는 시간은 하루 1 시간 정도 였으며, 나머지 시간은 나의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내가 구내식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아내의 비지네스에도 안정감을 주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아내로서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남편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내심 든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 교통성이 새로운 빌딩을 지어 이전하면서, 우리가 입주한 건물도 개수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무렵 쯤 우리도 비지네스를 그만두기로 결정하였고, 아내는 바로 은퇴하여 조용하던 옛날의 삶으로 돌아왔고, 나는 연구실을 버지니아로 이전하여, 가까운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진: 우리 동네 겨울 풍경 (1990)



사진: 미국 시민권 취득 환영

시민권 취득

우리 내외는 미국에 영주할 것을 결심하고, 정착할 보금자리를 새집으로 매입하였다 (아래 사진). 처음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의 절반 정도를 모게이지로 얻었으나, 비지네스에서 수입이 늘어나 곧 지불 완료하여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던 Southeastern 대학의 고용 보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2 년 못되어 영주권을 받았으며, 2000 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선거권을 갖게되어 나의 미국 이민은 완료되었다. 우리의 두 딸은 대학을 마치고 성혼하였고, 장녀는 결혼한지 13 년 만에 아들과 딸을 낳아서 우리 동네에서 이웃으로 지내고 있으며, 차녀는 컴퓨터를 전공하였고 성혼하여 캘리포니아에 살고있다. 누구나 자식들을 사랑하겠지만, 그들의 인생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인정해야한다.

돈 빌려달라는 교포 지인

미국에서는 자식과 부모 간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 꿴주는 곳은 은행이기 때문이다. 어느날 회계사인 한 지인이 자신의 사무실을 개축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여 \$20,000 꿴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가 사정이 있는가 싶어 주저없이 빌려주었는데 20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또한 어느날 한국문제 연구로 교류가 있었던 한 여성이 내게와서 갑자기 돈을 \$5,000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였다고 하니, 우리를 은행으로 착각하는 한국 지인들이 종종 있었다. 군인하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니 정직하고 순진하여 처음엔 속았으나, 이제는 속지 않게 되었다.

4. 초기 학술활동 (1990-2000)

국제한국학학회 (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ICKS)

학위를 마친 후 한반도와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고, 워싱턴의 주요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식견을 넓혔다. 1990 년대 전반은 국제관계의 연구 초점이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1994 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한반도 문제가 국제관계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미 원로 학자들은 국제관계에서

한반도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여, 연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를 창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코네티컷 대학의 김일평 (정치학) 교수님이 그 뜻을 내게 전해와서, 우리는 뉴욕에서 만나 참석한 몇분과 함께 학회창립을 합의하였고, 내가 By-law 를 초안해서 제안설명을 하였다. 창립 멤버들은 1996 년 3 월 뉴욕에서 검토 수정된 안에 서명하여 ICKS 를 창립하였고, 버지니아 주 기업위원회에 "국제한국학협회"를 등록하였으며, 비영리 법인으로 국세청의 승인을 받았다.

ICKS 의 By-law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한국학학회는 국제회의, 세미나, 출판물 및 기타 관련 활동을 통해 미국 및 해외에서 한국학 및 관련 학술 및 전문 연구의 발전에 전념하는 비영리, 초당파 조직으로 1996 년 3 월 설립되었다. 본 학회는 한국학의 의의를 제고하고,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 신세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통일 문제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사회는 이웅범 박사를 이사장으로, 김일평 박사를 회장으로, 본인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창립 멤버들은 처음 4 년 동안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수천 달러씩 기부함으로써 위원회의 견고한 기초를 다지려고 노력했다. 1996 년 11 월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서 "세계문제에서의 남북한"이라는 주제로 28 편의 논문과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학술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성공적이고 의미심장한 회의가 되었다. 선정된 학회논문은 1997 년 국제한국학저널(IJKS) 창간호에 게재되었다. [INAUGURAL ISSUE 1997 | ICKS](#) 다음 사진은 국제한국학학회의 창립 연례학술회의에 참석한 재미 한국 교수님들이다 (저자는 윗줄 우측에서 3 번째)

국제한국학학회는 COVID-19 로 인하여 연례 학술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학술지도 발간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2022 년 부터 인터넷으로 다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회의 리더쉽도 세대교체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 졌다. 과거에는 Korean American 학자들이 주도하였으나, 지금은 한국학을 하는 미국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학회창립 당시에 저자가 가장 연소하여 총무의 역할을 하였는데, 선배 교수님들이 타계하시고 내가 최 연상이 되었다. 작고하신 김일평 박사님을 추모하기 위해 2017 년에 한 모임을 가졌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아래 사진, 저자는 뒷줄 우에서 4 번째) 본 학회의 현황은 학회의 Website 에 업데이트하여 게재되고 있다. <<http://www.icks.org>>



사진: 국제한국학학회(ICKS) 창립 연례 학술회의 (1996, Arlington, VA)



사진: 고 김일평 박사 추모회 (2017, Fairfax, VA)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당시 나는 국제문제에 심취되어 CSIS 가 제공하는 학술 모임에 개근하다시피 참석하였고, VP 였던 고 William J. Taylor 박사와 친분을 생겨서 객원연구원으로 5 년간 연구활동에 참여하였다. 동시에 워싱턴의 주요 연구소의 학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여 현재 진행중인 국제문제에 관하여 잘 인식하게 되었고, 주요 발표자들과도 교류를 하였다. 경제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한 동안 국제관계에 심취하여, 자신이 주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도 하였다. 이기간에 정치학과 경제학의 경계선이 내게 희미해 졌다.

영어 학술 논문 (1990-2000)

저자가 이기간에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발표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았거나 접근이 어려운 논문은 "[See Full Version](#)" 으로 표시하였다.

(1) 한국 경제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Kim, Wheegook, **"Performance and Prospect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Direc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f the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held in Washington, DC in October 1995. Not Published. [See Full Version](#).

(2) 북한의 대안적 성장전략: 한국과 대만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 Kim, Wheegook, **"Alternative Growth Strategies of North Korea: Lessons from Experiences of South Korea and Taiwan,"** presented to ASSA 1996 Annual Meeting in January 1996. Not Published. [See Full Version](#).

(3) 북한 경제의 문제점과 구제책: 전략적 접근: Kim, Wheegook,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 Strategic Approach,"**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Winter 1996, 223-268. [KIDA 한국국방연구원 | Archive <바로보기> RKJD_A_9464565_O.pdf](#)

(4) 중미 관계가 한국 통일에 미치는 영향: Kim, Wheegook. **"The Impact of Sino-American Relations on Korean Unification,"**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11, No. 1 (Winter/Spring 1997), 20-64. [See Full Version](#).

(5)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진화: 한국의 사례: Kim, Wheegook, **"Evolution of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A Case of South Korea,"** presented to Philadelphia Symposium on Korea's Challenge Ahead: Economic,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n February 1998. Not Published. [See Full Version](#).

(6) 대결에서 협력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Kim, Hugo W.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A New Paradigm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XI (2) (Winter 1999): 35-

77. [KIDA 한국국방연구원 | Archive](#) <바로보> FF407022Y_002.pdf.

한국어 에세이 모음 (미주 한국일보 기고문)

김휘국, **희망의 나라로** (서울: 오름출판사, 1998). Kim, Hugo W. ***Towards the Land of Hope: South Korea Viewed from Washington.*** Seoul, South Korea: Oruem Publishing House, 1998. **ISBN-10: 8977780683** (260 pages). Written in Korean. [희망의 나라로: 워싱턴에서 본 한국 - 김휘국 - Google Books](#)

